

치과대학생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이 영 희¹⁾

이 영 미²⁾

김 동 기³⁾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이 연구는 치과대학생의 성격유형과 재학 중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전략 개발, 학습지원 및 학업상담의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2007년 1학기 J대학교 치의학과에 재학 중인 32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성격유형검사에 자발적으로 응한 272명을 분석하였다. 성격유형 검사는 MBTI GS형을 사용하였고, 학업성취도는 2007학년도 1학기 총점평균(GPA)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치과대학생의 성격은 MBTI 4가지 선호경향별로 볼 때 내향형(I)이 외향형(E)보다, 감각형(S)이 직관형(N)보다, 사고형(T)이 감정형(F)보다, 판단형(J)이 인식형(P)보다 많았다. 16가지 유형별로는 ISTJ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ISTP, ESTJ, ESTP 순이었으며, 가장 적은 유형은 INFJ, ENFJ, INFP, ENTP 순이었다. 기능별로는 ST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기질별로는 SJ유형이 과반수에 달했지만 SP유형은 일반인, 의사 및 치과 의사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분포를 보였다. 치과대학생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감각형(S)이 직관형(N)보다, 판단형(J)이 인식형(P)보다 유의하게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고, 기질별로는 SJ형이 SP, NT, NF형보다 학업성취도가 더 높았다. 그러나 외향형(E)과 내향형(I), 사고형(T)과 감정형(F)에 따라서는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치과대학생은 한국 대학생의 일반적인 분포와 마찬가지로 감각-사고형(ST)이 가장 많았지만, 감각-인식형(SP)의 기질 패턴이 일반인이나 의사 또는 치과 의사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MBTI 성격유형 중 감각형-직관형 그리고 판단형-인식형의 성격 특성은 대학 재학 기간 중의 학업성취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치과대학생 성격의 집단적 경향성을 고려하여 수업 방법과 전략 및 평가양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MBTI 성격유형, 치과대학생, 학업성취도

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연구강사

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3) 교신저자: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교수 (E-mail: dkbkim@chosun.ac.kr)

I. 서론

대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대학 교육을 통하여 배운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관 등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이수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일반적으로 의·치과대학생은 과중한 수업량과 학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타 전공 학생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대학과 달리 의·치과대학은 예과 2년과 본과 4년에 이르는 총 6년의 학업이수기간을 거치며, 본과 3·4학년은 임상 실습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학생들의 수강과목에 대한 선택권은 거의 없으며 수업시간은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매일 오전 9시 전부터 오후 5시까지 빈틈없이 운영된다. 매 학기 혹은 매 주 여러 가지의 필기시험과 구두시험, 실기시험에 쫓기며, 일반대학과 달리 유급제도가 엄격하여 많은 학생들이 적지 않은 학업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본과 4학년 2학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시험에 몰두하게 되어 일반대학에 비해 학업량이 과다하고 상호 경쟁을 유도하는 분위기에서 대학생활을 보내게 된다(전진용 등, 2000).

Wexler(1978)는 의과대학생이나 치과대학생의 경우 주로 시험 성적과 과다한 학업량 등의 압박 하에서 불안, 긴장, 적대감, 우울 등과 같은 정서적 장애나 위장장애, 불면증, 피로, 현기증, 빈맥, 구강 건조증, 수족 발한 과대 등의 신체적 장애를 호소한다고 보고하였고, 김충수(1993)는 시험 스트레스가 의대생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부분적인 면역저하가 올 수 있다고 발표

하고 있다. 미국 치의학교육협회(The Council on Dental Education)에 따르면, 매년 약 3.5%의 치과대학 1학년 학생들이 교육환경에 의한 스트레스 때문에 학업을 포기한다고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대학 기간 동안 의·치과대학생의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지금까지 의·치과대학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교육방법은 각 과목의 전문교수들이 많은 양의 지식을 한정된 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은 수동적이고 방관자적 입장에 있었다. 이러한 교육환경에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 한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이끌어낼 수가 없고, 교수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방법과 학업성취도 평가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고심할 필요도 없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생 개인의 특성에서부터 학교의 내·외적 교육조건, 교수의 역할과 기대, 학생의 가정배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신정철, 정지선, 신태수, 2008). 여기에 학생 개인의 성격과 교수의 교육방법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학습동기 차원에서 성격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연구들(송미섭, 지은림, 1996; 소연희, 2008)은 성격에 따라 학습동기 부여방식이 다르고, 동기 수준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성격은 직업 및 전공 선택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Hojat & Zuckerman, 2008; Stilwell, Wallick, Thal, & Burleson, 2000). 따라서 유사한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는 일을 하거나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방식으로 학습

을 하게 되면 최상의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개인의 성격을 측정하는 도구 중 널리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는 Jung의 심리유형론에 기초하여 개발된 MBTI(Myers Briggs Type Indicator)가 있다(Sternberg & Grigorenko, 1997). 그 동안 MBTI는 교육 및 학습, 팀 빌딩, 상담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한 성격 분류의 틀로 폭넓게 사용되었고, 일반 교육학, 심리학, 상담학 등의 연구 분야에서는 성격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MBTI를 활용하여 의·치과대학생의 성격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치과대학은 일반대학과 다른 교육과정 구조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 재학기간 동안 일반대학생과는 전혀 다른 교육적 경험을 하게 된다. 즉, 6년제 교육시스템, 임상실기교육의 비중이 큰 점, 과중한 학습량 외에도 많은 양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의 전수를 바랍직한 교육의 전형으로 생각해왔던 전통 때문에 학생들의 성격과 같은 비인지적 특성을 교수방법, 팀 구성 및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고, 또 학생 개인의 성격이 의과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의과대학생의 성격 특성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는 연구가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김선, 1999; 김선, 김주현, 허예라, 2005; 이영미 등, 2006; 박귀화 등, 2006; 이영희, 이영미, 김병수, 2008; 소연희, 2008), 아직 국내에서 치

과대학생의 성격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는 한 편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다른 전공분야에서 MBTI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 치과대학 같은 특정 전공분야의 MBTI 관련 연구가 없는 현실은 MBTI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대학생의 전공별 성격 패턴 분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게 한다.

외국의 경우도 MBTI를 의·치과대학생의 학업성취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킨 연구는 많지 않다(Mace & Tira, 1999). 그러나 몇몇 연구들을 통해 성격과 같은 비인지적, 정의적인 요소들이 의·치과대학에서 학업 성취수준과 임상수행능력을 예측하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음이 알려져 왔다(Smithers, Catano & Cunningham, 2004; Jones et al.,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의·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 만으로는 의·치과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 간의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매우 힘들고, 외국과 한국 의·치과대학생의 성격유형 패턴을 비교 분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치과대학생의 성격유형 분포를 파악하고, 성격유형과 재학 중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그 동안 교수 중심으로 주도되어 온 치과대학의 교수-학습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수업방법을 개발하는데 성격 변수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더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치과대학생들을 위한 학습지원 및 학업상담의 정보를 얻는데도 유용할 것이다. 치과대학 학생

들과 타 전공 학생들 간의 성격유형의 비교를 원하는 연구자에게는 비교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보고된 적이 없는 치과대학생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 간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과대학생의 MBTI에 나타난 4가지 선호경향별(EL, SN, TF, JP), 16개 유형별, 기능별(ST, SF, NF, NT), 기질별(SJ, SP, NF, NT) 분포를 파악한다. 둘째, 치과대학생의 성격유형(선호경향별, 16개 유형별, 기능별, 기질별)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확인한다. 이러한 연구문제는 다소 진부하게 보여 질 수 있으나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MBTI를 활용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I. 선행연구 고찰

성격은 한 사람의 독특한 사람됨으로서 학습자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개인의 행동양식을 결정짓는 기본 조건으로서 성격은 선호하는 대인관계 방식과 의사소통유형, 학업성취도, 전공 및 직업 선택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치과대학생의 인성 특성과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을 탐색한 선행연구는 첫째, 성격유형의 일반적인 분포를 기술적으로 제시한 연구들이 있고(Erskine, Westerman & Grandy, 1986; Silberman, Cain & Mahan, 1982). 둘째, 성격 특성이 의·치과대학생의 전공 선택 및 전공영역에서의 성공가능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규명한 것들이 있으며, 셋째, 입학 초기의 성격유형이 대학교육 기간 동안 어떻게 유지 또는 변화해 가는지를 탐색한 것들이 있다(Silberman, Freeman & Lester, 1992; McDaniel, Siler & Isenberg, 1985; Cain et al., 1983).

첫 번째로 성격유형의 일반적인 분포를 제시한 선행연구로서 Erskine 등(1986)은 치과대학 1학년 120명의 MBTI 유형을 보고하였는데 전체의 55%(N=66)가 ESTJ(19), ESFJ(19), ENTJ(16), ISTJ(12)의 4가지 유형이었고, 나머지 45%가 12개 유형이었다. Silberman 등(1982)의 연구에서는 가장 많은 그룹이 ESFJ와 ESTJ였고, 가장 적은 그룹은 INTP, INFP, ENTP로 확인되었다. 중국의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Wu 등(2007)의 연구에서는 외향형보다 내향형이, 직관형보다 감각형이, 감정형보다 사고형이, 인식형보다 판단형이 더 많은 분포를 보였고, ISTJ, ESTJ, ISFP가 전체 학생들의 40.8%를 차지하였다. 이들 세 연구의 공통적인 특징은 STJ가 가장 많고, 인식형보다 판단형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양의 치과대학생은 외향형이, 중국은 내향형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른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회계학 전공자는 외향형보다 내향형이(Laribee, 1994), 간호대학생은 사고형보다 감정형이, 외향보다는 내향형이(김희숙, 2003) 더 많이 분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Jones 등(1997)은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다른 전공자에 비해 사회적으로 훨씬 외향적이며, 보다 높은 수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라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회계학

전공 학생들의 MBTI 유형을 연구한 Laribee (1994)는 2학년에서 졸업에 이르는 시간 동안에 필터링이 되어 결국에는 내향형(I), 감각형(S), 사고형(T), 판단형(J)의 선호경향을 지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전문회계인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는 또한 회계학 전공 학부생들의 성격유형이 회계전문가들의 성향과 유사한 반면 다른 전공의 학생들과는 다른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학부생들에게서 발견되는 성격유형의 패턴은 대학을 벗어나 전문가 집단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보았다(박재용, 박우성, 2005).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신입생초기경험프로그램(Freshman Early Experiencing Program:FEEP)에 참여했던 신입생 중 교직에 관심있어 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8년 동안 MBTI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감각형, 감정형, 판단형이 직관형, 사고형, 인식형보다 많았다(Sears, Kennedy & Kaye, 1997).

국내의 연구로서 황희숙과 강승희(2005)는 4년제 유아교육전공자 대상 연구에서 내향보다는 외향이, 직관보다는 감각이, 인식보다는 판단형이 많았고 사고형과 감정형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질별로는 SJ가 가장 높은 비율(51.4%)을 보였으며, SP가 30.5%, NF가 15.2%, NT가 2.9%였다.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생 114명을 대상으로 한 김희숙(2003)의 연구결과는 외향(40.4%)보다 내향(59.7%), 직관(14.0%)보다 감각(86%)이 현저하게 높았고, 감정형(59.6%)은 사고형(40.4%)보다, 인식형(53.5%)은 판단형(46.5%)보다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전공에 따라 특정한 성격유형의 패턴이 더 많이 발견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치과대학 학생들의 성격이 경영학, 회계학, 교육학, 간호

학, 의학 및 다른 분야의 학생들과 다를 수 있음을 말해 준다.

두 번째, 치과대학생들의 성격 특성이 전공에서의 성공가능성 및 학업성적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 대표적 연구로서, Smithers 등(2004)은 캐나다 치과대학생들의 긍정적 정서, 외향성, 개방성, 아이디어 같은 인성 특성이 치과대학 선발 시에 이루어지는 치의학적성시험(DAT: Dental Aptitude Test)과 인터뷰보다 임상수행능력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볼 때 특정한 인성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임상수행 측면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플로리다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ones 등(1997)의 연구에서도 MBTI의 내향형 학생들이 외향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학업성적을 보였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향형의 학업성적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서 임상실습의 비중이 높아지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내향형이 외향형보다 학업수행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또한 감각형과 판단형의 학생들이 직관형과 인식형의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우수했음을 보여주었다.

의과대학생들의 성격 특성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보면, 김선, 김주현, 허예라(2005)의 연구에서는 MBTI유형 중 사고형이 감정형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았으며, 5개 요인 모델을 적용하여 의과대학생의 인성 특성과 학문적 수행 간의 관계를 조사했던 Lievens 등(2002)은 성실성(conscientiousness)이 임상실습 전의 학업점수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성격과 전공 선택과

의 관련성 연구에서는 외과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다른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보다 충동적 감각추구(impulsive sensation seeking) 점수가 높았고(Hojat & Zuckerman, 2008), MBTI의 감정형은 사고형보다 가정의학을 더 자주 선택하였지만 외향형과 사고형은 내향형과 감정형보다 외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Stilwell et al., 2000). Thompson 등(1998)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학습스타일과 성격유형에 관한 워크숍을 실시한 결과 워크숍 참가 이후 의사들이 사고 스타일과 정보인식 형태를 환자진료와 교육, 현장관리 및 행정, 의료 교육의 분야에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성격특성을 의사교육 및 진료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 입학 전과 대학 교육을 받은 후, 성격 패턴에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자 한 선행 연구로서 Silberman 등(1992)은 치과대학생의 11.2%가 성격이 바뀌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McDaniel 등(1985)은 MBTI 점수가 대학 4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Cain 등(1983)도 치과대학교학과 1학년 학생의 개인적 가치와 욕구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을 밝히고, 치과대학 학생들의 인성특성에 대한 지식이 학생들의 개인적 전문적 삶을 발달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태도와 가치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치과대학 입학지원자들의 가치와 욕구에 대해 가능한 많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치과대학생의 성격유형 분포는 회계학이나 간호학과 교육학을 비롯한 다른 전공분야의 학생들과 다를 수 있으며, 성격 특성은 학생들의 학

구적 능력 혹은 임상수행능력을 예측하는 변수가 될 수 있는바 내향형은 외향형보다 임상수행에서 어려움을 더 겪을 수 있고, 감각형과 판단형이 직관형이나 인식형보다 성적이 더 우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교육 기간 동안 MBTI 유형 패턴이 변화하는가에 대한 것은 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지만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있으므로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2007년 1학기 J 치과대학에 재학 중인 본과 1-4학년 학생 3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 시행 당시 이미 MBTI 검사를 받아 본 학생들 중 다시 검사받기를 희망하지 않는 50명을 제외하고 272명의 답안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84.4%). 최종 분석대상이 된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년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년별 분포 단위: 명(%)

학년 \ 성별	남	여	계
1학년	61(22.4)	18(6.6)	79(29.0)
2학년	43(15.8)	15(5.5)	58(21.4)
3학년	40(14.7)	29(10.7)	69(25.4)
4학년	36(13.3)	30(11.0)	66(24.2)
계	180(66.2)	92(33.8)	272(100.0)

2. 조사 도구 및 척도

연구대상자의 성격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Jung의 심리유형론에 근거하여 개발되었고, Myers와 Briggs가 개발한 성인용 MBTI GS형을 사용하였다. 1990년에 한국어판으로 표준화된 MBTI검사의 반분법(Split-half)에 의한 내적 신뢰도는 EI지표 .77, SN지표 .81, TF지표 .78, JP지표는 .82로 상당히 높았고, 재검사(Test-retest) 방법에 의한 신뢰도 역시 EI지표 .86, SN지표 .85, TF지표 .81, JP지표는 .88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심혜숙, 김정택, 제석봉, 1995). 학업성취도는 2007년도 1학기말에 학생들이 획득한 총점평균점수(Grade point average: GPA)를 활용하였는데, 5점을 만점으로 하여 A+ 5점, A0 4.5점, B+ 4점, B0 3.5점, C+ 3점, C0 2.5점, D+ 2점, D0 1.5점, F 0점으로 측정하였다.

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06년 11월과 2007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2학년은 2006년 11월 인문사회의학 특강 시간에, 1, 4학년은 2007년도 1학기 전공 강의시간에 해당 전공 교수님의 양해를 구하고 나서 연구자가 직접 MBTI 워크숍을 실시한 후 수집하였다. 워크숍은 2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검사 오리엔테이션 5분, MBTI 검사 실시 15분, 채점 및 프로파일 작성 10분, 그룹작업 30분, 그룹별 발표 40분, 해석 및 정리 20분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3학년은 2007년 1학기 Poly-Clinic 수업의 한 코스로 진행하여 10개 조별로(한

조당 9-10명) 1시간 30분 동안 진행하였다. MBTI 검사 실시 15분, 각 유형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과 설명 40분, 그리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35분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4. 자료 분석

전체 연구대상자의 MBTI 성격유형 분포와 성별, 학년별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MBTI의 4가지 선호경향인 외향형(Extraversion: E)과 내향형(Introversion: I), 감각형(Sensitive: S)과 직관형(Intuition: N), 사고형(Thinking: T)과 감정형(Feeling: F), 판단형(Judging: J)과 인식형(Perceiving: P)의 2개 그룹별로 학업성적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4가지 기능별(ST, SF, NF, NT), 기질별(SJ, SP, NF, NT), 16가지 성격유형별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5% 이하에서 판단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MBTI 성격유형 분포

4가지 선호경향별

연구대상자의 MBTI 성격유형 분포를 4가지 선호경향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일반적인 태도 유형인 에너지의 방향을 기준으

표 2. 4가지 선호경향별 MBTI 성격유형 분포

	성격유형 지표	N(%)
에너지의 방향	외향형(Extraversion)	102(37.5)
	내향형(Introversion)	170(62.5)
인식/정보수집기능	감각형(Sensing)	218(80.1)
	직관형(iNtuition)	54(19.9)
판단/의사결정기능	사고형(Thinking)	195(71.7)
	감정형(Feeling)	77(28.3)
생활 태도	판단형(Judging)	153(56.3)
	인식형(Perceiving)	119(43.8)
계		272(100.0)

로 보면 ‘내향형(Introversion)’이 62.5%로 ‘외향형(Extraversion)’보다 많았고, 인식기능에 따라서는 ‘감각형(Sensing)’이 80.1%로 ‘직관형(iNtuition)’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 판단기능별로는 ‘사고형(Thinking)’이 ‘감정형(Feeling)’보다 많은 71.7%를 차지했으며, 생활태도 지표에 따라서는 ‘판단형(Judging)’이 56.3%로 ‘인식형(Perceiving)’보다 많은 선호경향을 나타냈다.

다. 기능별 분포는 인식기능과 판단기능의 조합에 따라 ST, SF, NF, NT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ST가 58.1%였고, SF 22.1%, NT 13.6%, NF 6.3% 순으로 나타났다. ST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외현적인 행동패턴을 보여주는 기질별 유형은 SJ, SP, NF, NT의 4가지로 구분하는데 SJ가 46.9%에 가까웠고, SP는 33.5%였으며, 나머지는 NT가 13.6%, NF가 6.3%였다.

기능별/기질별

기능별 및 기질별 MBTI 분포는 표 3과 같

16가지 성격유형별

MBTI의 16가지 성격유형별 분포를 보면 표

표 3. 기능별/기질별 MBTI 성격유형 분포

기능별			기질별		
유형	N (%)		유형	N (%)	
ST	158(58.1)		SJ	127(46.7)	
SF	60(22.1)		SP	91(33.5)	
NT	37(13.6)		NT	37(13.6)	
NF	17(6.3)		NF	17(6.3)	
계	272(100.0)		계	272(100.0)	

표 4. 16가지 유형별 MBTI 성격유형 분포

명(%)

EI	JP	TF	SN		감각 (S)		직관 (N)		계
			사고형 (T)	감정형 (F)	감정형 (F)	사고형 (T)			
내향형 (I)	판단형 (J)		ISTJ 67(24.6)	ISFJ 19(7.0)	INFJ 2(0.7)	INTJ 15(5.5)	I--J		103(37.7)
	인식형 (P)		ISTP 36(13.2)	ISFP 16(5.9)	INFP 4(1.5)	INTP 11(4.0)	I--P		67(24.5)
	인식형 (P)		ESTP 23(8.5)	ESFP 16(5.9)	ENFP 8(2.9)	ENTP 5(1.8)	E--P		52(19.1)
외향형 (E)	판단형 (J)		ESTJ 32(11.8)	ESEJ 9(3.3)	ENFJ 3(1.1)	ENTJ 6(2.2)	E--J		51(18.7)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ISTJ가 2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ISTP가 13.2%, ESTJ가 11.8%, ESTP가 8.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적은 유형은 INFJ, ENFJ, INFP, ENTP 유형으로 각각 2% 이내에 불과하였다. 에너지의 방향과 생활태도별로 분류해 보면 IJ가 37.7%로 가장 많았고, IP가 24.5%, EP가 19.1%, EJ가 18.7% 순이었다.

2. MBTI 성격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

4가지 선호경향별 차이

연구대상자의 MBTI 4가지 선호경향에 따라 학업성적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인식기능(S/N)과 생활태도(J/P)에 따라 학업성적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인식기능별로는 직관형(N)보다 감각형(S)의 학업성적이 높았고, 생활태도에 따라서는 판단형(J)이 인식

표 5. 4가지 선호경향별 MBTI 성격유형과 GPA 점수의 차이

성격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값
에너지의 방향	외향형(E)	102	3.09	.596	.528
	내향형(I)	170	3.06	.577	
인식기능	감각형(S)	218	3.11	.574	2.116*
	직관형(N)	54	2.92	.602	
판단기능	사고형(T)	195	3.10	.561	1.506
	감정형(F)	77	2.99	.634	
생활 태도	판단형(J)	154	3.22	.533	5.068***
	인식형(P)	118	2.87	.590	

*p< .05, ***p<.001

형(P)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학업성적을 보였다(표 5. 참조). 판단형(J)과 감각형(S)의 학생들이 학기말 시험에서 더 높은 학업성적을 획득하는 반면, 직관형(N)과 인식형(P)의 학생들은 높은 학업성적을 얻는데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방향에 따라서는 외향형(E)이 내향형(I)보다 높은 성적을 얻었고, 판단기능별로는 사고형(T)이 감정형(F)보다 높은 학업성적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기능별/기질별 차이

성격유형의 기능에 따라서는 감각-사고형(ST)이 가장 높고 직관-감정형(NF)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이들 유형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기질별 유형에서는 감각-판단형(SJ)의 학생들의 총점평균이 3.25점으로 다른 유형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다(표 6. 참조).

16가지 성격유형별 차이

MBTI의 16가지 유형별로 보면 ENTP형의

표 7. 16가지 MBTI 유형별 GPA점수의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값
ESTJ	33	3.32	.48	2.846***
ESTP	22	2.92	.61	
ESFJ	9	3.27	.59	
ESFP	16	3.03	.49	
ENTJ	6	2.98	.77	
ENTP	5	3.34	.61	
ENFJ	3	3.04	.09	
ENFP	8	2.53	.81	
ISTJ	67	3.21	.52	
ISTP	36	2.95	.59	
ISFJ	19	3.28	.65	
ISFP	16	2.63	.53	
INTJ	15	3.06	.51	
INTP	11	2.70	.43	
INFJ	2	3.30	.46	
INFP	4	2.88	.64	
계	272	3.07	.58	

***p< .001

표 6. 기능별/기질별 MBTI 유형에 따른 GPA점수의 차이

기능별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기질별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ST	158	3.13	.56	2.266	SJa	128	3.25	.53	9.045***
SF	60	3.04	.62		SPb	90	2.90	.57	
NT	37	2.98	.57		NTc	37	2.98	.57	
NF	17	2.79	.67		NFd	17	2.79	.67	
계	272	3.07	.58		계	272	3.07	.58	

***p< .001 Duncan b, c, d < a

총점평균이 5점 만점 중 3.34점으로 가장 높았고, ESTJ(3.32점), INFJ(3.30점), ISFJ(3.28점), ESFJ(3.27점), ISTJ(3.21점), INTJ(3.06점), ENFJ(3.04점), ESFP(3.0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점이 3점 이하인 유형은 ENFP(2.53점), ISFP(2.63점), INTP(2.70점), INFP(2.88점), ESTP(2.92점), ISTP(2.95점), ENTJ(2.98점) 순이었다(표 7 참조). 평점이 3이상인 9개 유형 그룹에는 판단형이 7개였고 인식형은 2개 만이 포함되었다. 반면에 평점이 3이하인 유형에는 인식형이 6개, 판단형이 1개가 포함되어 판단형과 인식형 간에 학업성취도 차이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학생들의 개인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치과대학에서의 교수 학습 전략 개발에 중요하다는 가정 하에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치과대학생의 4가지 선호경향별, 16개 유형별, 기능별, 기질별 성격유형 분포를 파악하였고, 둘째, 치과대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치과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은 4가지 선호경향별로 볼 때 내향형(I)이 외향형(E)보다, 감각형(S)이 직관형(N)보다, 사고형(T)이 감정형(F)보다, 판단형(J)이 인식형(P)보다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Wu 등(200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며, 의과대학생의 성격유형 분포를 보고한 김선(1999)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것이다. 또한 한국대학생의 성격유형 분포를 제시한 심혜숙, 김정택, 제석봉(1995)의 MBTI 유형분석에서 ISTJ형이 19.03%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과도 일치하고 있다. 16가지 유형별로는 ISTJ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ISTP, ESTJ, ESTP 순이었으며, 가장 적은 유형은 INFJ, ENFJ, INFP, ENTP였다. 미시시피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던 Silberman 등(1982)의 연구에서 ESFJ와 ESTJ가 가장 많았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인데, 이는 서양보다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동양권 문화에서 외향형보다 내향형이 더 많은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능별 유형 분포는 ST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외현적인 행동패턴을 보여주는 기질별 유형은 SJ형이 과반수에 달했다. 흥미로운

표 8. 의사집단, 치과의사집단, 치과대학생의 기질별 MBTI 성격유형 분포 명(%)

기질별 분류	의사집단 (N=63)	치과의사집단 (N=85)	치과대학생 (N=272)
SJ	36(57.1)	46(54.1)	128(46.9)
SP	16(25.4)	25(29.4)	91(33.3)
NF	3(4.8)	3(3.5)	17(6.2)
NT	8(12.7)	11(12.9)	37(13.6)
계	63(100.0)	85(100.0)	273(100.0)

점은 기질별 유형인 SP형이 한국 대학생 기준 집단이나 의사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한국심리검사연구소와 한국MBTI연구소(2004)에 의하면 SP형 분포는 의사집단이 25.4%, 치과의사집단이 29.4%였으며(표 8 참조),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치과대학생의 SP분포는 33.3%로 의사집단이나 치과의사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SP형은 읽고, 분석하고, 이론화하는 것보다는 직접 행동하는 것과 문제해결을 선호하고 탁월한 기술과 예술적 기교가 요구되는 일에 능한 특성을 가지는데(심혜숙, 김정택, 1998), 이러한 특성은 치과의료 분야 또는 치과대학 교육과정의 정교한 기술적 요구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치의학교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치과대학생들이 보다 더 조직화되고, 꼼꼼해지며, 시간엄수가 철저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독립적이 되어감에 따라, 특정 유형의 성격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게 된다고 주장한 선행연구(McCreary & Gershen, 1982)에 근거하여 볼 때 ST의 기능적 특성과 SP의 기질적 특성이 치과대학에서 더 일반적인 패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Motowidlo와 Scotter(1994)도 성격 특성이 직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경험은 상황적 수행보다 과업 수행과 관련성이 더 높고, 성격은 과업수행보다 상황적 수행과 관련성이 더 높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치의학 교육과정이 이미 수립된 지식을 암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과 절차를 개발하는 것인지에 따

라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격의 패턴도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물음인 치과대학생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즉, 감각형(S)의 성격유형을 가진 학생들이 직관형(N)의 성격유형을 가진 학생들보다, 판단형(J)이 인식형(P)보다 유의하게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다. Nourayi와 Cherry(1993)의 연구에서 감각형이 직관형의 학생들보다 우수한 성취도를 나타냈던 것과 일치하며, 학업을 포함한 일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신속하게 처리하고, 자기통제적인 판단형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해서 마무리하기를 어려워하고 일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 인식형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도 여러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Anchors et al., 1989; Myers & Myers, 1980; 임지영 등, 2001, 김선 등, 2005). 그러나 감각형과 사고형 학생들은 강의방식의 수업에서 우월한 성취도를 보이는 반면 직관형과 감정형의 학생들은 컴퓨터가 지원되는 과목에서 우월한 성취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Ott, Mann & Moores, 1990)에 비추어 볼 때 성격유형이 직접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성격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수업방식과 같은 매개변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Murphy 등(2004)의 연구에서도 지지되는 바, 그는 치과대학 학생들이 시각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사용하는 교수를 선호하고, 강의시간 중에 필기를 하도록 촉진하는 교수를 선호한다고 하여, 치의학

교육과정을 거치는 6년의 과정동안 학생이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학습하느냐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질별로 보면 SJ형이 SP, NT, NF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향형(E)과 내향형(I), 사고형(T)과 감정형(F)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감각형(S)과 판단형(J)의 학생들이 직관형(N)과 인식형(P)보다 더 높은 등급을 획득한다고 했던 Jones 등(1997)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정희 등(2000)에 의하면 감각형과 직관형은 시험문제 유형에 따라 상이한 성취결과를 보일 수 있다고 한다. 사지선다형 시험에서 직관형은 문제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인지, 문제 이면에 숨겨진 계략이나 이중의 미는 없는지를 필요이상으로 생각하느라 문제를 복잡하게 읽기 때문에 가끔씩 엉뚱한 답을 선택하는 문제가 있는 반면, 논술형 문제에서 감각형은 학습한 정보의 나열에는 우수하나, 서론, 본론, 결론의 단계를 설정하고 그 정보들이 전체 맥락에서 각 단계에 연관지어지기를 이끌어내는 데는 약한 단점을 가진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지선다형 또는 단답형으로 이루어지는 치과대학의 시험은 직관형보다는 감각형에게 다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단형(J)이 인식형(P)보다 높은 학업성적을 보인 것은 집중력이 있고 질서정연한 학생들이 치과대학의 학습 측면에서 더 잘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판단형(J)이 일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신속하게 처리하고, 자기통제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일을 두서없이 한꺼번에 시작해서 하나의 일을 끝내는데

어려워하고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일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 인식형보다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하였는데(김선 등, 2005; Anchors et al., 1989; Myers & Myers, 1980), 이러한 논의와도 이 연구의 결과는 일치하고 있다. 송미섭과 지은림(1996)의 연구결과에서 판단형의 학생들은 전공을 불문하고 높은 학업성취도와 정적 상관성이 있었다. 판단형은 계획성과 마감일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는 학교에서 자유분방하고 여러 가지 일을 벌이기를 좋아하며 마무리 짓기를 어려워하는 인식형에 비해 유리한 경향이 있다. 즉 판단형의 학생들은 완성을 향해 꾸준히 계획과 스케줄에 따라가는 과정에서 학습효과를 내며, 일정을 정해놓고 숙제나 레포트를 제출하게 하고 그것에 따라 학점을 매기는 교수들의 지도방법에 잘 들어맞는다. 이는 판단형이 인식형보다 더 능력이 많다거나, 더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판단형의 마무리 짓는 자연적인 선호성이 학점을 받기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밝혀지고 있다(이정희 등, 2000).

한편 외향적인 경향이 강한 학생들은 치의 학교교육프로그램의 임상적 요소에서, 내향적인 학생들은 학구적 요소에서 덜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Jones et al., 1997)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외향형과 내향형 간에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는 학업성취도를 총점평균 단일 점수로 측정하였을 뿐 임상교과와 기초교과목의 점수로 나누어 성격유형이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임상적 요소에 더 강하거나 혹은 이론적이고 학구적인 요소에 더 강한 내향적 또는 외향적 성격의 영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성격을 비롯한 인성적 또는 비인지적 요인이 임상교과와 기초교과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와 설명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치과대학생들의 성격유형은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성격은 여러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측면들이 주변 환경과 역동적으로 관계하기 때문에 학업성취도와 성격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전공이나 학업성취도와 성격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그들의 학습방법 및 평가양식 개발, 그리고 학습상담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 자신이 선호하는 학습방법과 학업성취 상의 잠재적인 문제점을 미리 인식하고 교육기간동안 나타날 수 있는 취약점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상담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 준다. 또한 교수들이 치과대학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수업 및 상담전략을 개발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욕구와 가치 등 인성특성에 대해 가능한 많이 알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치과대학 교수는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해 학생들의 성격특성에 의한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양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일 개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치과대학에 일반화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 연구의 수행 당시 연구대상 치과대학의 수업은 거의 전통적인 강의식 방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연구

의 결과를 문제중심학습법이나 팀 중심학습법 같은 자기주도적 수업방법을 주로 적용하고 있는 치과대학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치과대학 교육과정의 성적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성 특성이 과연 치과의사 재직기간 동안의 직무성적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치과대학생은 한국 대학생의 일반적인 분포와 마찬가지로 감각-사고(ST)가 가장 많지만, 감각-인식(SP)의 기질 패턴은 상대적으로 크게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MBTI 성격유형 중 감각형-직관형 그리고 판단형-인식형의 성격 특성은 대학 재학 기간 중의 학업성취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치과대학생들의 성격의 집단적 경향성을 고려하여 수업 방법과 전략 및 평가양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김 선 (1999). 의과대학생의 성격과 학업만족도 및 학업성취도간의 관련성 연구. 한국 의학교육, 11(2), 271-284.
- 김 선, 김주현, 허예라(2005). 의과대학생의 성격과 학업성취도 비교를 통한 교육방법. 한국의학교육, 17(2), 107-119.
- 김충수 (1993). 시험 스트레스가 의대생의 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희숙 (2003).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 자아존

- 중감 및 정신건강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2(4), 385-393.
- 박재용, 박우성(2005).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인사관리연구*, 29(3), 95-124.
- 소연희 (2008). 의과대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이 수업에 대한 흥미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학교육*, 20(1), 37-49.
- 송미섭, 지은림 (1996). 대학생의 성격과 전공 및 학업성취도간의 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교육학연구*, 34(1), 113-129.
- 신정철, 정지선, 신태수 (2008).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그 영향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6(1), 287-313.
- 심혜숙, 김정택 (1998). MBTI 성장프로그램 지도자 안내서(II).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심혜숙, 김정택, 제석봉 (1995). MBTI 개발과 활용.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이영미, 함병주, 이경아, 안덕선, 김명곤 (2006). 의대생의 자기효능감과 환경요인, 성격, 학업성취도 관련성. *한국의학교육*, 18(3), 249-258.
- 이영희, 이영미, 김병수 (2008). 의예과 학생의 성격특성과 의사소통능력 및 수업태도의 관계. *한국의학교육*, 20(3), 177-187.
- 이정희, 심혜숙, 이정희, 신영규, 김종구, 심민보 역 (2000). 성격유형과 학습스타일.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임지영, 유일영, 오순남 (2001). 일 대학교 간 호대학생의 성격유형과 입학성적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1(5), 835-845.
- 전진용, 김상아, 문동석, 강동원, 박웅섭 (2000). 의대생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관동의과대학학술지*, 4(1), 127-135.
- 한국심리검사연구소, 한국MBTI연구소 (2004). MBTI 테이타 بانک.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한혜숙, 원영순 (2007).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격유형 결과. *한국위생과학회지*, 13(1), 25-30.
- 황희숙, 강승희 (2005). 예비 유아교사의 사고양식 및 성격유형과 창의적 인성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0(2), 131-150.
- Anchors, W. S., Robbins, M. A., & Gershman, E. S.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Jungian type and persistence to graduat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17, 20-25.
- Cain, M. J., Silberman, S. L., Mahan, J. M., & Meydrech, E. F. (1983). Changes in dental students' personal needs and values. *Journal of Dental Education*, 47, 604-608.
- Erskine, C. G., Westerman, G. H., & Grandy, T. G. (1986). Personality type of first-year dental students. *Journal of Dental Education*, 50, 221-224.
- Garbee, W. H., Zucker, S. B., Selly, G. R. (1980). Perceived sources of stress among dental students. *JADA*, 100, 853-57.
- Hojat, M., & Zuckerman, M. (2008). Personality and speciality interest in medical students. *Medical Teacher*, April, 1-7.
- Jackson, S. L., Parker, C. P., & Dipboye, R. L. (1996). A comparison of competing models

- underlying response to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99-115.
- Jones, A. C., Courts, F. J., Sandow, P. L., & Watson, R. E. (1997). Myers-Briggs type indicator and dental school performance. *Journal of Dental Education*, 61, 928-933.
- Kovar, S. E., Ott, R. L., & Fisher, D. G. (2003). Personality preferences of accounting students: a longitudinal case study. *Journal of Accounting Education*, 21, 75-94.
- Laribee, S. (1994). The psychological types of college accounting students.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28, 37-42.
- Lievens, F., Coestsier, P., Fruyt, F. D., & Maeseneer, F. D. (2002). Medical stud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academic performance: a five-factor model perspective. *Medical Education*, 36, 1050-1056.
- Mace, J. G. & Tira, D. E. (1999). Time management behaviors as potential explanatory factors in dental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Dental Education*, 63, 738-744.
- McDaniel, S. P., Siler, W. M., & Isenberg, B. P. (1985). Analysis of personality traits of the contemporary dental student. *Journal of Dental Education*, 49, 579-583.
- Morris, D. O. (2000). Personality types of dental school applicants. *European Journal of Dental Education*, 4, 100-107.
- Motowidlo, S. J. & Scotter, J. R. (1994). Evidence that task performance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contextual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9, 475-430.
- Murphy, R. J., Gray, S. A., Straja, S. R., & Bogert, M. C. (2004). Student learning preferences and teaching implications. *Journal of Dental Education*, 68, 859-866.
- Myers, I. & Myers, P. (1980). *Differing gifts*.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Nourayi, M. M., & Cherry, A. A. (1993). Accounting student's performance and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69, 111 - 115.
- Ott, R. L., Mann, M. H. & Moores, C. T. (1990).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Interactive Effects of Student Personality Traits and Method of Instruction on Student Performance in Elementary Accounting. *Journal of Accounting Education*, 8, 17-35.
- Sears, S. J., Kennedy, J. J. & Kaye, G. L. (1997). Myers-Briggs Personality Profiles of Prospective Educator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0. 195-202.
- Silberman, S. L., Cain, M. J., & Mahan, J. M. (1982). Dental student's personality: a Jungian perspective. *Journal of Dental Education*, 46, 646-651.
- Silberman, S. L., Freeman, I., & Lester, G. R. (1992). a Longitudinal study of dental students' personality type preferences. *Journal of Dental Education*, 56, 384-388.
- Smithers, S., Catano, V. M., & Cunningham, O. P. (2004). What predicts performance in Canadian dental schools?. *Journal of Dental Education*, 68, 598-613.

- Sternberg, R. J. & Grigorenko (1997). Are cognitive styles still in style?. *American Psychologist*, 52, 700-712.
- Stilwell, N. A., Wallick, M. M., Thal, S. E., & Burleson, J. A. (2000). Myers-Briggs type and medical speciality choice: A new look at an old question. *Teaching and learning in Medicine*, 12, 14-20.
- Thompson, J. A. & Bing-You, R. G. (1998). Physicians' reactions to learning style and personality type inventories. *Medical Teacher*, 20, 10-14.
- Westerman, G. H., Grandy, T. G., & Erskine, C. G. (1991). Personality types of dentists. *American Journal of Dentistry*, 4, 298-302.
- Wexler, M. (1978). Mental health and dental education. *Journal of Dental Education*, 42, 74-77.
- Wu, S. J., Miao, D. M., Zhu, X., Liang, J., Liu, X. F., Luo, Z. X., & Wang, W. (2007). The personality types of Chinese dental postgraduate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5, 1077-1086.
- 1 차원고접수 : 2009. 01. 01.
수정원고접수 : 2009. 02. 16.
최종게재결정 : 2009. 02. 27.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s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levels of Dental Students

Lee, Young-Hee

Dep. of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Lee, Young-Mee

Dep. of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Kim, Dong-Kie

Dep. of Preventive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s and levels of academic achievement amongst Korean dental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272 dental students of J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which has been validated in Korea, was used for evaluating the personality types. The GPA which was acquired at the end of the first semester was used for measuring th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ANOVA and t-tests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es. Introversion (I), Sensing (S), thinking (T) and Judging (J) personality types were more prevalent than Extraversion (E), intuition (N), Feeling (F) and Perceiving (P) types in this study group. ISTJ ranked 1st out of the 16 personality types. Next was ISTP, followed by ESTJ and ESTP. The GPA score for Sensing (S) personality types' students were higher than that of intuition (N) personality types students. The GPA score for Judging (J) personality type students were higher than that of Perceiving (P) type students. The GPA scores for SJ personality type students were higher than that of SP, NT and NF. In conclusion, denta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level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MBTI personality typ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students' personality types could be considered when it comes to developing teaching strategies, learning methodologies and counseling systems for improving levels of scholastic achievement.

Key words : Personality inventory, MBTI, Denta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